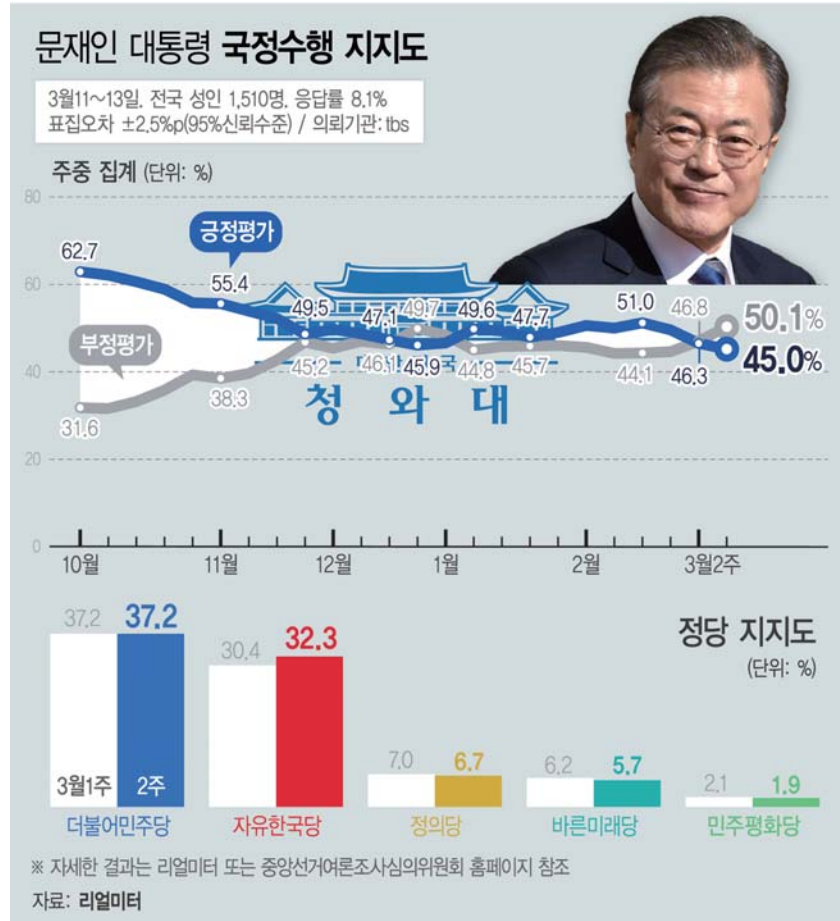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두 번째 최저치 45%

데드크로스 이후 격차 더 벌어져...긍정 45% vs 부정 50.1%

민주 37.2%, 한국 32.3%...민주-한국 격차 4.9%p까지 좁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 '데드 크로스' 현상이 이어지던

서 2개월 여만에 부정 평가가 50%대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3월 1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8.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3%p 오른 50.1%(매우 잘못 32.9%·잘못하는 편 17.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9%로 집계됐다.

이날 집계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 45%는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최저치는 '김태우 폭로' 사건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4주차 주중집계(43.8%)에서 나왔다. 부정 평가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였던 51.6%(12월4주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높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부정 평가비율이 긍정 평가보다 5.1%p 앞섰다. 오차 범위인 ±2.5%p를 벗어났다. 사흘 전 같은 조사에서 데드 크로스 현상

이 나타난 뒤 그 폭이 더 커졌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했다"며 "새로 선출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상승이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8%p ↓·43.9%)과 서울(3.1%p ↓·44.8%)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대전·세종·충청(2.8%p ↑·48%), 광주·전라(1.1%p ↑·60.4%)에서는 소폭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4.4%p ↓·50.4%)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다. 50대(3.8%p ↓·38.6%)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변화 없이 37.2%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32.3%,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5.7%, 민주평화당 1.9% 순으로 민주당 뒤를 이었다.

4주 연속 상승 중인 한국당은 30%대 초반을 기록, 5·18 망언 논란으로 25.2%까지 떨어졌던 지지율(2월2주차)을 약 1개월만에 7.1%p 가까이 끌어올렸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4.9%p까지 좁혀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감동 경찰청장 박병의 승리가 관련된 경남 버닝썬 관련 보고를 하 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고개 숙인 민감동 경찰청장 "경찰 유착 지우고하 막론"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발본색원 해 엄중 조치"

민감동 경찰청장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병행해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민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업무보고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전국적으로 종합적 수사·감찰 체제를 확대해 강남 클럽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사 업체에 대해서도 미약·성폭력·불법촬영물·경찰관 유착에 대한 대대적이고 경장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부조리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당은 또 "경찰은 국민 요구와 바람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을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이합해 야합하며 패스트트랙 데드라인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3월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탄력근로제 연장 주휴수당 조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좌파 집권 플랜을 위한 관련법 추진과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민생이라는 밥그릇은 걸어차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이 시행되면 경찰이 지방 토 호 세력과 더 밀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정당은 "이번 사건은 경찰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또 한 번 강조하며 '투단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 없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그룹 '빅뱅'의 승리(29·분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30) 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모빌 단체 대화방을 통해 경찰과 유혹업소 간 유착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민정당은 긴급간담회를 열어 "2016년 7월 대화방 내용 중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밝혔다. 한 유혹업소 관계자가 개입한 클럽이 불법 구조물 설치로 신고당한 일이 언급되자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 "(유혹업소 관계자에게)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보낸 문자를 봤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그룹 JT아일랜드의 멤버 최중훈(29)씨가 2016년 3월 경찰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경찰에 청탁해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2016년 정준영씨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씨 휴대전화 복원을 하던 업체에 "복구 불가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장관 후보자 7명 재산 평균 26억원...4명이 다주택 보유

진영, 67억원 신고...부동산 다수

최정호,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의 평균 재산이 26억 5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자 중 절반 가량은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각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 중 가장 많은 총 60억 9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진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시 용산구 오피스텔과 건물 전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서울시 성동구 도산동의 토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은평구 불광동의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총 42억98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구로구 신도림동의 아파트 전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7억원 상당의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3억6000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건물과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9억여 원 상당), 대전의 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전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남양주의 토지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을 비롯해 총 6억27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들 중 가장 적은 4억 5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내정 직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사위에게 편법 증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증여 직후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다.

또 지난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잠실의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사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점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어떻게 국회 문을 열었지만 지금 여당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잣밭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을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야합하며 야합하며 패스트트랙 데드라인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3월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탄력근로제 연장 주휴수당 조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좌파 집권 플랜을 위한 관련법 추진과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민생이라는 밥그릇은 걸어차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